



2010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통상환경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1. 세계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주요 내용

- ▶ 201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무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 선진 경제권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경기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2010년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일부 국가의 통화 강세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 ▶ DDA 협상은 G20 등 일련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2010년 까지 타결짓자는 목표가 확인된 바 있어, 2010년 상반기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2009년 말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무리된다면, 2010년 3~4월 이전까지 본격적인 미 의회 심의를 기대할 수 있음.
- 한·EU FTA는 2010년 초 정식서명을 마친 뒤 한국과 EU 내에서 각각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7월경 공식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2010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 및 실물경제지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 증대폭이 커질 것임.
 - 2010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2010년 상반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 ▶ 2010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 환율 절상, 국내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흑자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對선진국 수출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임.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 201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무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10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2010년 세계무역이 2009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009년 11월 경제전망에서 2010년 세계무역이 전년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경제권에 비해 개도국경제권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선진경제권의 2010년 수입은 2009년 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개도국경제권의 수입은 2009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2007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서 2010년에도 경제위기의 여파가 세계무역에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1. 2010년 세계무역 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무역량 (상품 및 서비스)	7.3 (7.3)	3.0 (3.0)	-11.9 (-12.5)	2.5 (6.0)
수입				
선진경제권	4.7	0.5	-13.7	1.2
개도국경제권	13.8	9.4	-9.5	4.6
수출				
선진경제권	6.3	1.9	-13.6	2.0
개도국경제권	9.8	4.6	-7.2	3.6

주: 1) () 안은 OECD 전망치임.
 2) 개도국경제권에는 emerging markets이 포함됨.
 자료: IMF(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09. 11), *Economic Outlook*, No. 86, Vol. 2.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 선진경제권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경기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2010년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고용시장 악화 지속 및 가계저축률 상승 등으로 부진한 국내소비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와 해외수요 회복에 기인하여 수출입 모두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미국 2010년 무역수지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품수출	1,138	1,277	1,032	1,146
상품수입	1,969	2,117	1,548	1,746
무역수지	-831 (-5.9%)	-840 (-5.8%)	-517 (-3.6%)	-600 (-4.1%)

주: () 안의 GDP 대비 비중.
 자료: Global Insight(2009. 10).

- EU는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수출이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EU집행위 전망). 일본은 2010년도 수출이 전년대비 약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6개 민간 경제연구소 종합).

-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 통화 가치 상승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인해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는 크지 않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10년 개도국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일부 국가의 통화 강세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 세계경제 회복으로 중국의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로 돌아서고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나, 중국의 내수 회복으로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흑자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세계은행은 2010년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서비스 포함)을 각각 9.9%와 10.4%로 전망하고, 순수출의 GDP 증가율 기여도를 0.4%포인트로 예측).

- 인도의 교역량은 선진국 경기의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겠지만, 루피화 절상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 러시아는 세계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 동시베리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10년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중남미의 수출은 미국, EU 등 선진권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한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 성장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입 증가세로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될 전망이다.
- ASEAN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의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의 완만한 증대로 무역수지 흑자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통화가치 인상의 압력과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제조업 부문 수출 회복은 완만할 전망이다.
-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중동의 2010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40~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아프리카도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와 1차산품의 가격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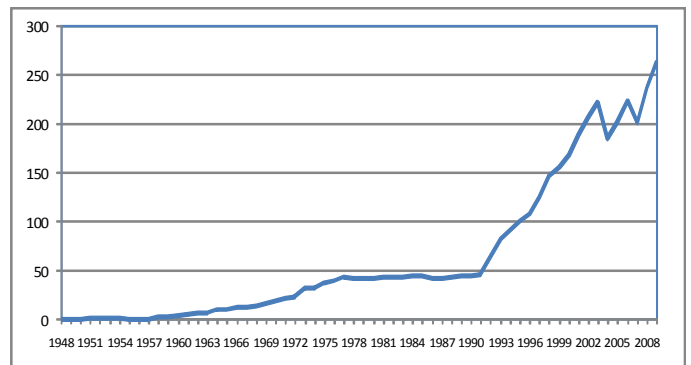
- 다만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현재 새로운 TPA에 대한 입안조차 되지 않고 있어, 2010년 내 새로운 TPA를 의회로부터 받아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1) 세계 RTA 추진 동향

- 지난 1948년 GATT 창설 이후 199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91건을 기록하였던 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 이후 오히려 더욱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10월 30일 현재 누계기준으로 총 263건에 달함(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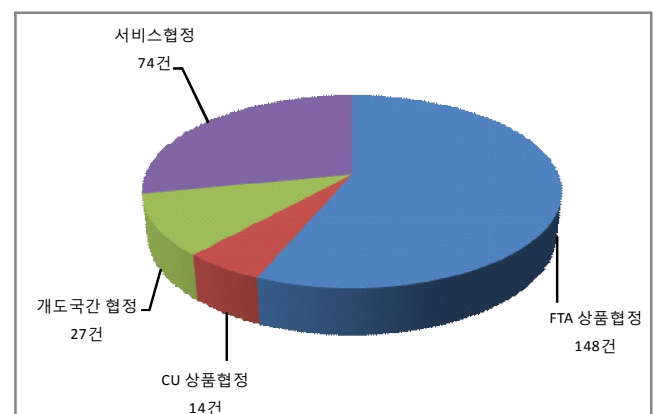
그림 1.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RTA(2009년 10월 30일 기준)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또한 총 263건의 RTA 가운데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162건(FTA 148건, CU 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협정이 74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이 27건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유형별 지역무역협정체결 현황(2009년 10월 30일 현재)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 2009년 상반기에 진전이 없었던 DDA 협상은 2009년 하반기부터 협상그룹별로 이미 제시된 세부원칙(modality) 수정안을 놓고 기술적인 협상을 벌여왔음.
- 또한 2008년 말 라미 사무총장이 제시한 'Two-track approach'에 따라 미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양자협상을 갖는 등 현재의 세부원칙 수정안과 실제 주요국이 제출할 이행계획서에 나타나게 될 결과를 점검하고 있음.
- 'Two-track approach'란 현재와 같이 세부원칙에 대한 다자적 기술적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서(track 1) 동시에 협상 성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outcome testing) 양자/복수국간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track 2) 것을 의미함.
- 한편 2009년 11월 30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7차 WTO 정례 각료회의는 DDA 협상과 분리되어 실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
- 그러나 G8 확대정상회담(2009년 7월), APEC 통상장관회담(8월), G20 정상회담(9월) 등 일련의 주요국 정상 또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DDA 협상을 2010년에 타결짓자는 목표가 확인된 바 있어, 2010년 상반기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난 2009년 6월 이후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 협정은 총 17건으로,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10건,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협정이 7건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음.

표 3. 2009년 6월 이후 WTO에 통보된 신규 RTA(2009년 10월 30일 현재)

관련 조항	협정	WTO 통보일	발효일	협정 유형
GATT 제24조	니카라과-대만	2009.7.9	2008.1.1	FTA
	파나마-대만	2009.7.28	2004.1.1	FTA
	페루-싱가포르	2009.7.30	2009.8.1	FTA
	캐나다-페루	2009.7.31	2009.8.1	FTA
	캐나다-EFTA	2009.8.4	2009.7.1	FTA
	칠레-콜롬비아	2009.8.14	2009.5.8	FTA
	일본-스위스	2009.9.1	2009.9.1	FTA
	EC-카메룬	2009.9.24	2009.10.1	FTA
	일본-베트남	2009.1.1	2009.10.1	FTA
	GCC	2009.10.6	2003.1.1	CU
GATS 제5조	니카라과-대만	2009.7.9	2008.1.1	EIA
	파나마-대만	2009.7.28	2004.1.1	EIA
	캐나다-페루	2009.7.31	2009.8.1	EIA
	칠레-콜롬비아	2009.8.14	2009.5.8	EIA
	일본-스위스	2009.9.1	2009.9.1	EIA
	일본-베트남	2009.1.1	2009.10.1	EIA

주: FTA: Free Trade Agreement,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2007년 7월 통계부터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이 EIA로 개칭됨).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한편 2009년 11월 말 현재 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은 [표 4]와 같으며, 지난 6월 이후 추가로 협상이 타결되거나 협상이 개시된 FTA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2개월 만인 2009년 7월 EU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10월 15일 가서명), 인도와의 CEPA는 8월 7일 정식서명을 마침(11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콜롬비아와는 12월 7~9일간 제1차 FTA 협상을 개최하였음.
- 일본은 2009년 5월 말 페루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스위스와의 FTA를 9월 1일 공식 발효시켰고 베트남과의 FTA도 10월 1일 발효시킴.
- 캐나다는 2009년 7월 1일 EFTA와의 FTA를, 8월 1일에는 페루와의 FTA를 공식 발효시킴. 또한 8월 파나마와의 FTA 협정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10월 말에는 EU와 FTA 협상을 개시함.
- 뉴질랜드는 2009년 10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1월 초에는 GCC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11월 말에는 홍콩과 FTA 협정에 서명함.

표 4.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2009년 11월 말 현재)

국가	기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미국	NAFTA, 미국-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FTAA, SACU, 말레이시아, UAE, 에콰도르, 태국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베트남, 쿠웨이트, 파키스탄
캐나다	E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FTAA, CACM,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싱가포르, EU, 우크라이나	안테안공동체, CARICOM, EU, 일본, 태국, 인도
MERCOSUR	멕시코, 이스라엘, CAN, 인도, 칠레	EU, GCC, 모로코, MERCOSUR-인도-SACU, 캐나다	EFTA, SACU, 미국, 한국, 중국
EU	EFTA, 남아공,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CARIFORUM, PLO,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CU),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한국	ACP, GCC, MERCOSUR, 이란, CAC, CAN, ASEAN, 리비아, 몬테네그로, 베트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인도, 콜롬비아, 페루,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한국	ASEAN, EFTA, 미국, 싱가포르, 칠레, EU, 인도	GCC,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MERCOSUR,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SACU, 이스라엘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GCC, SACU, 아이슬란드, 호주,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인도, 한국, MERCOSUR, 스위스, 남아공, 대만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스위스	GCC, 인도, 호주, 페루	대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EU, 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ASEAN	UAE, GCC,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멕시코, 인도, PIF, TPP,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Trans Pacific SEP, 싱가포르,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호주-ASEAN, 홍콩, GCC, 말레이시아	한국	멕시코, 미국, 인도, 일본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fta.kita.net>)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2) RTA 추진 전망

-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초 세계경기의 침체와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인해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들은 경제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내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은 보호주의 움직임보다는 자국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내년도에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경우, 각국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관련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난 10월 가서명을 마친 한·EU FTA는 2010년 초 정식서명을 마친 뒤 한국과 EU 내에서 각각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7월경 공식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007년 6월 체결된 한·미 FTA는 2년 이상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 FTA의 비준 절차가 본격화될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임.
- 현재 미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 외에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체결한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도 비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다만, 미국 내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2009년 말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무리된다면, 2010년 3~4월 이전까지 본격적인 미 의회 심의를 기대할 수 있고, 중간선거 전 비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2009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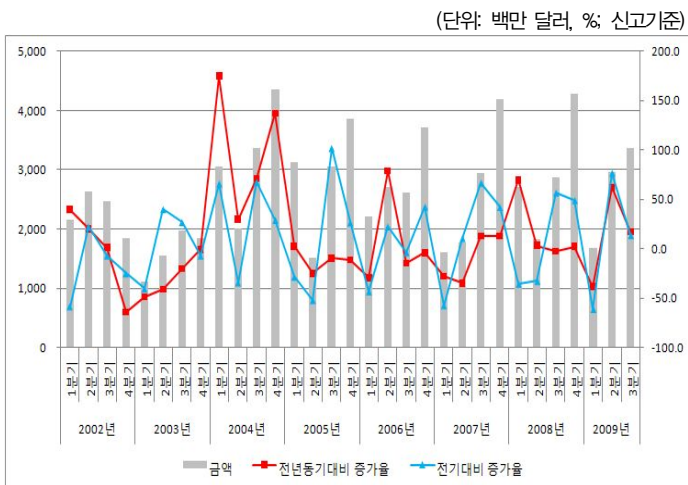
1) 외국인직접투자

- 2009년 1~3분기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80.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함(신고금액 기준).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분기 -38.2%, 2분기 62.0%, 3분기 17.4%이며, 전기대비 증가율은 1분기 -60.9%, 2분기 76.9%, 3분기 13.7%로 모두 2분기 연속으로 증가함.
- 즉 2009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여건이 투자에 유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유치실적을 기록함.
- 국가별로는 과거에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온 미국에 의한 투자가 주춤함.
-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해왔음.
- 2001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에 의한 투자가 한국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7%로 높음.
- 그러나 2009년 1~3분기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하였음.
- 일본(18.0억 달러), 영국(16.8억 달러), 네덜란드(14.0억 달러)로부터의 투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104.2%, 74.1%, 119.4%로 높음.
- 이외 홍콩(7.1억 달러), 중국(1.5억 달러)으로부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282.6%, 368.5%로 매우 높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에,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음.
- 2001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투자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108억 달러)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227억 달러)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함.

- 전기·전자의 경우 반도체(74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금융·보험의 경우 금융업(198억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높음.
- 그러나 2009년 3분기 중에는 기계·장비, 도·소매(유통),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많은 투자를 유지함.
- 특히 도·소매(유통)의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1억 달러로 전체 산업 중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가장 많음.
- 2009년 1~3분기까지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의 산업별 투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국가별로 주요 투자 산업이 다름.
- 2009년 1~3분기 동안 제조업의 경우 주로 영국으로부터 운송용 기계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서비스업의 경우 일본과 네덜란드는 비즈니스서비스에, 미국은 금융·보험에, 영국은 도·소매(유통)에 많은 투자를 함.

- 기 13.4%로 증가하는 추이로 전환되었음.
- 즉 2009년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달리 저조한 실적이나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
- 국가별로는 중국 및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발함.
- 2001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926억 달러) 중에서 중국(229억 달러), 미국(183억 달러)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에 달함.
- 2009년 1~3분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중국 및 미국으로의 투자가 많았음.
- 단, 최근 들어 미국으로의 투자(26억 달러)가 중국으로의 투자(14억 달러)보다 많은 것이 이전과 다른 점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에,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그림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주: 금액은 왼쪽, 증가율은 오른쪽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2) 해외직접투자

- 2009년 1~3분기까지 해외직접투자는 10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7%의 큰 감소를 기록함(투자금액 기준).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분기 -52.9%, 2분기 -37.5%, 3분기 -38.7%로 2008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하였음.
- 그러나 전기대비 증가율은 1분기 -19.6%, 2분기 1.7%,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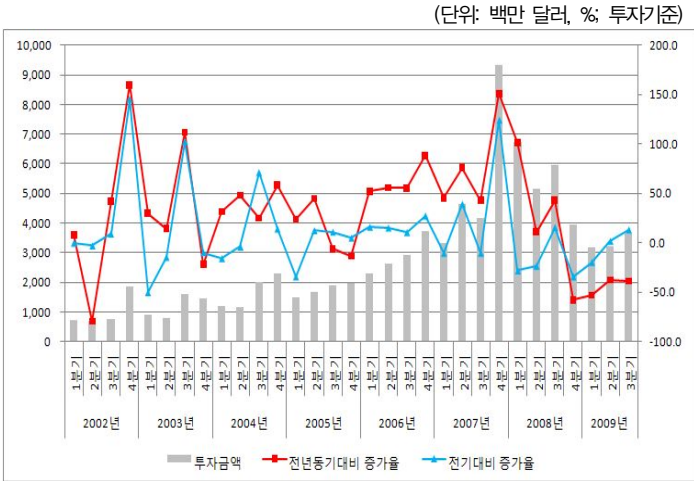
- 이 외에 투자가 활발한 산업은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산업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임.
- 특히 2009년 1~3분기까지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음.
- 이에 비해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2009년 들어 급격히 감소함.
- 2006년 7.9억 달러, 2007년 15.8억 달러, 2008년 16.5억 달러로 증가하던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1~3분기 현재 6.4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함.
-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7.6%에서 2009년 6.4%로 감소함.

■ 최근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패턴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추이에 따르면 과거에 제조업의 경우는 양국 모두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가 많았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에는 금융·보험업, 미국에는 도·소매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그러나 2009년 1~3분기 동안 미국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서비스업 투자에서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음.

그림 4. 해외직접투자 동향



주: 금액은 왼쪽, 증가율은 오른쪽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investTotal_year.jsp).

나. 투자 전망

- UNCTAD(2009)에 의하면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인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0년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과 같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59%에 달함.
- 한편 Global Insight(2009년 11월)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09년에 3.0%에서 2010년 5.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제도적으로 한국은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 중점유치 대상 선정 추진과 LBO 방식의 M&A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2009년 12월까지 최종 중점유치 대상이 확정될 예정임.
- LBO 방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 및 실물경제지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 증대폭이 커질 것임.

- 특히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LBO 방식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증대될 수 있음.

- 한편 2010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lobal Insight(2009, 11)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2009년 5.1%에서 2010년 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한국의 제1 투자국인 미국의 2010년 경기가 담보상태를 유지할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음.
- 즉, 국내 및 전 세계 투자여건 개선 조짐에 따라 한국의 해외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2010년 상반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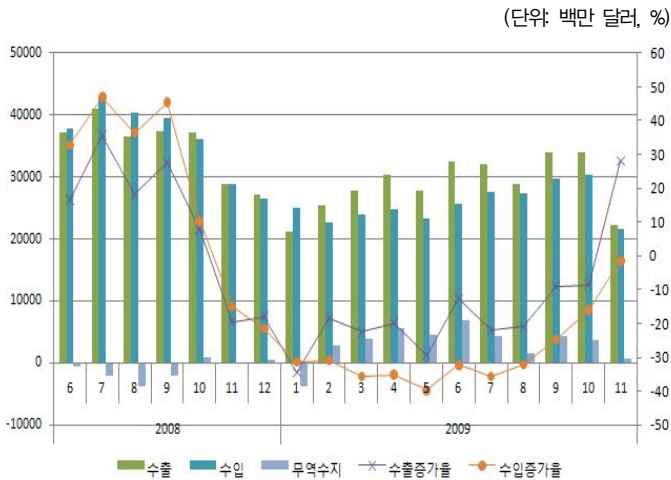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9년(1~11월) 무역 현황

- 2009년 1~11월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한 3,1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818억 달러로서 수출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컸음(전년동기간대비 29.8% 감소).
-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부터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들어서 매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11월까지 이어옴.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출입 규모와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2009년에는 1월을 제외하면 매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1~11월간 무역수지 흑자액은 344.5억 달러인데, 이는 주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또한 유가 안정도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였음.
- 2008년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997년 이후 11년 만에 132.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 2009년 11월(11월 20일까지의 잠정치 기준) 들어 수출이 12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율(28.1%)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의 감소폭도 전년동기대비 -1.4%로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조짐을 보임.

○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11월과 비교하면, 수출 및 수입규모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

그림 5. 월별 수출입 추이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임(11.1~11.21). 이하 동일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년 1~11월간 주요 수출 대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20%가량 감소하였음.

-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3.0%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15.0% 감소하여 개도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 폭이 낮았음.
- 선진국 가운데는 일본, EU, 개도국 가운데는 CIS, ASEAN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하였음.

표 5.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11.20)
전체 수출	325,465 (14.4)	371,489 (14.1)	422,007 (13.6)	316,230 (-17.5)
미국	43,184 (4.5)	45,766 (6.0)	46,377 (1.3)	33,071 (-20.4)
EU	49,240 (12.8)	55,982 (15.6)	58,375 (4.3)	41,062 (-23.4)
일본	26,534 (10.4)	26,370 (-0.6)	28,252 (7.1)	19,098 (-25.2)
중국	69,459 (12.2)	81,985 (18.0)	91,389 (11.5)	74,860 (-11.9)
아세안	32,006 (16.9)	37,495 (20.8)	49,283 (27.2)	35,313 (-21.1)
중남미	20,591 (37.4)	25,781 (25.2)	33,267 (29.0)	23,539 (-19.2)
CIS	7,241 (32.6)	11,313 (56.1)	13,637 (20.5)	5,334 (-56.4)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009년 CIS 통계는 1~10월간의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반면 對중국 수출 감소폭(-11.9%)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에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11월 들어 중동(-12.8%)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함.

■ 품목별로는 2009년 1~11월간 선박류(12.5%)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며, 특히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전년도에 급증하였던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43.3%).

- 반도체 수출은 수출가 상승과 수요물량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며, 무선통신기기 역시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를 나타냄.

- 자동차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2009년 미국,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호조를 보였음.

○ 자동차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8년 5.9%에서 2009년 9월의 경우 7.1%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2008년 6.7%에서 2009년 9월 8.4%를 기록함.

- 선박 수출은 기확보한 수주물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기록하고 있으나, 불황으로 인한 수주 취소가 발생하였음.

표 6.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1.20)
전체 수출	325,465 (14.4)	371,489 (14.1)	422,007 (13.6)	316,230 (-17.5)
반도체	37,360 (24.6)	39,045 (4.5)	32,793 (-16.0)	26,341 (-13.9)
자동차	32,922 (11.6)	37,284 (13.2)	35,032 (-6.0)	21,325 (-31.5)
무선통신기기	27,018 (-1.7)	30,458 (12.7)	35,713 (17.3)	28,163 (-15.1)
컴퓨터	12,576 (-10.9)	13,808 (9.8)	10,697 (-22.5)	6,995 (-30.0)
선박류	22,123 (24.8)	27,777 (25.6)	43,157 (55.4)	40,392 (12.5)
석유제품	20,404 (32.8)	23,966 (17.5)	37,573 (56.8)	20,011 (-43.3)
합성수지	11,177 (8.5)	13,000 (16.3)	14,909 (14.7)	11,567 (-16.2)
영상기기	7,782 (4.7)	7,001 (-10.0)	6,665 (-4.8)	3,778 (-40.0)
철강판	10,997 (7.7)	12,375 (12.5)	15,948 (28.9)	10,363 (-28.9)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 1~11월간 국내수요 위축, 유가 안정화 등으로 인해 중동(-44.0%), 중국(-33.2%), 미국(-27.0%)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2.7%, 개도국으로부터는 34.2% 감소하였는데, 이처럼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덜 감소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비 및 산업구조가 보다 고품질·고기술 분야에 의존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 7.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1,20)
전체 수입	309,383 (18.4)	356,846 (15.3)	435,275 (22.0)	281,784 (-29.8)
미국	33,654 (10.0)	37,219 (10.6)	38,365 (3.1)	25,620 (-27.0)
EU	30,168 (10.5)	36,824 (22.5)	39,981 (8.6)	28,176 (-22.9)
일본	51,926 (7.3)	56,250 (8.3)	60,956 (8.4)	43,003 (-23.4)
중국	48,557 (25.6)	63,028 (29.8)	76,930 (22.1)	47,494 (-33.2)
ASEAN	29,743 (14.1)	33,110 (11.3)	40,917 (23.6)	29,963 (-21.1)
중동	62,531 (31.9)	67,541 (8.0)	101,645 (50.5)	53,191 (-44.0)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2009년 1~11월간 대부분의 품목군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8년 대비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원유(-46.2%) 및 석유제품(-34.3%) 수입이 전년 동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국내수요 위축으로 인해 철강관 수입액이 급감함(-47.7%).

나. 2010년 무역 전망

- 2010년은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세계경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바, 2007년과 같은 수준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초 원화가치의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달러 약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로 인해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유가는 2009년 60달러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유 수입액은 2010년 들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해외시장에서 선전하였으며, 2010년 들어서도 이 품목들의 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휴대폰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폰 등 새로운 트렌드에 동참하면서 2009년 3분기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31.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1분기 27.9% → 2분기 30.1%), 이러한 호조를 2010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해외생산 비중이 확대(2009년 3분기 67.7%)되면서 수출규모 자체는 다소 정체될 수 있음.

- 반도체, LCD 분야에서는 2009년 대규모로 이루어진 외국 경쟁사의 구조조정과 시장 퇴출, 그리고 한국업체의 우수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호조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2010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반도체의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쟁국 업체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고, LCD 역시 경쟁국의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2010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석유제품의 경우 유가가 2009년에 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국내 정유사의 정제 마진 악화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2010년 수출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2010년에도 수출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선박 수출은 확보된 수주량이 있으나, 추가적인 수주 증가량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데, 對개도국 수출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신흥개도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빠른 속도로 높아짐.

- 단, 개도국 경제 역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對개도국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IMF(2009년 10월 전망)는 2010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1.3%, 개도국 5.1%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선진국(2.7%)과 개도국(8.3%)의 경제성장률에 상당히 밀도는 수치임.

○ Global Insight 역시 2010년 선진국 1.6%, 개도국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 환율 절상, 국내 수입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흑자규모는 2009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의 무역수지 흑자는 상당 부분 큰 폭의 수입 감소로 인한 것이었으나, 2010년 들어서는 서서히 경제위기 이전의 구조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하면, 2010년 수출은 세계경기의 점차적인 회복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對선진국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빠르고 유가와 원화 가치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9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KIEP**

■ 참고문헌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UNCTAD, 2009,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09-2011*.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09. 3/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2분기 연속 증가세 기록」, (10월 1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녹색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중점유치대상 선정 추진」, (9월 3일)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09.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investTotal_year.jsp

연구진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

(jdkim@kiep.go.kr, Tel: 3460-1028)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hjhyun@kiep.go.kr, Tel: 3460-1050)

이정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